

발 간 등 록 번 호

인천교육-2022-0247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2022 겨울 제31호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Magazine



학생성공시대

OPEN



인천광역시교육청



Cover story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통협력담당관

편집인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기획 및 편집 길기호, 정다윤, 김영상

사진 변상호, 이주한, 서주희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표지사진 인천광역시교육청 홍보대사 웅성우

홈페이지 www.ice.go.kr

디자인 · 인쇄 삼정인쇄(T. 032-773-3402)

발간등록번호 인천교육-2022-0247

제호 서체작가 꽃비 고천성

전화 032-320-0082

특집

- 0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을 만나보세요!
- 10 인천형국악프로젝트의 또 다른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악합창단
- 12 인천 청소년, 다~누리리라!

캠페인

- 16 세계를 품은 더 큰 인천교육을 위한 마중물, '인천바로알기교육'
- 18 다시 On! 체험하며 즐기는 인천수확축전 현장
- 20 독서습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 22 과학의 빛 인천에서 세계로 쏘아 올린다.

학교돋보기

- 24 부모는 안심, 아이는 행복! 인천예송유치원
- 26 교사, 수업을 통해 성장을 말하다!
- 28 우리 학교는 우리가 만들어가요!
- 30 건강채움! 행복더함! MOVE 프로젝트로 신나는 우리 학교

공감

- 32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슬기로운 알바생활'을 소개합니다.
- 34 인천광역시교육청 유튜브 채널 콘텐츠 추천 Review
- 36 아이반찬 건강식당 채식 밥상 백서
- 39 자녀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정보

- 40 E-BOOK으로 읽어요, 내 손안의 인천통합전자도서관
- 42 학부모와 소통하는 고민 상담만화(유아의 식사습관 바로잡기)
- 46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신청안내
- 47 인천광역시교육청 sns 소개

인천교육소식지 바로보기



독자 여러분의 제안과 리뷰를 기다립니다.

"인천교육소식(tinylife@ice.go.kr)"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의견을 선정해 소개해 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ice.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견해와 다를 수 있으며

기사, 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는 금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을 만나보세요!



층별 체험교육안내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낫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보는 것으로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습득하기 어려운 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 더 확실히 기억에 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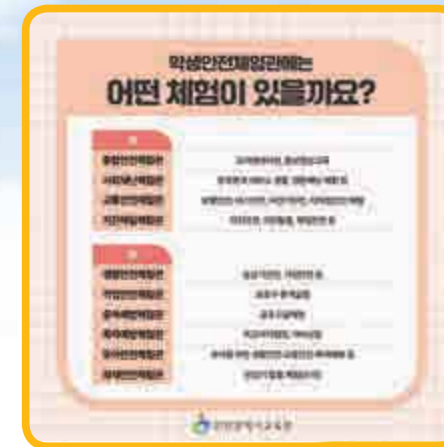
그중에서도 ‘**안전체험**’은 생명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체험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지 모릅니다. 화재, 지진,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예방법에 대해 이론으로는 알고 있어도 머릿속이 하얘지고 당황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학생안전체험관**’이 우리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이하 학생안전체험관)은 안전인지 감수성과 위기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년별 맞춤 안전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F



종합안전체험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인천 학생의 안전교육을 위해 개관하였습니다.

학기 중에는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학년, 학급, 동아리 단위의 체험이 가능하며, 방학 중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안전체험교육**’이 운영됩니다. 가족체험은 학교의 안내에 따라 방학 전에 예약 절차를 거친 후, 예약일에 가족이 함께 하는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안전의식을 내면화하고 위기 대처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학생안전체험관은 총 4층 건물로 모두 12곳의 체험시설과 약 90종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종합안전체험관**입니다. 이곳에서 학생안전체험관이 어떤 곳이고 오늘 진행할 체험은 무엇인지에 관해 설명을 듣고 체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회재난안전체험관은 현재 우리가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감염병, 미세먼지, 대피소 등과 관련하여 알아보고 사회재난 발생 시 가장 필요한 물품, 생존배낭 꾸리기와 방호복 입기, 대피방법 등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재난안전체험관



1F

먼저 1층부터 둘러볼까요?

교통안전체험관은 도로, 버스, 지하철을 꾸며놓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의할 점, 차에서 안전벨트 착용이 중요함을 알리는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체험관



지진해일체험관은 사실적으로 만들어진 교실 모형에서 지진을 체험하고 탈출하는 시뮬레이션 등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지진해일체험관



2F

2층에서도 많은 체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생활안전체험관



생활안전체험관은 화장실, 주방, 거실이 있는 집 안에서 발생하는 전기, 화재 사고와 우리가 흔하게 이용하는 승강기 사고 등을 알아보고 대처하는 법을 배웁니다.

직업안전&중독예방체험관



직업안전체험관은 보호구 충격 실험으로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도 체감해 볼 수 있으며 중독예방체험관은 음주고글을 착용해 가상으로 음주의 위험성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유아안전체험관



유아안전체험관은 유아의 눈높이에 맞추어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등 다양한 체험교육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폭력예방체험관



폭력예방체험관은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폭력에 대해 모의재판에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3F



3층 **응급처치체험관**은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최근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진 만큼 모형으로 직접 체험하여 바른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응급처치교육은 위급상황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태풍안전체험관은 배에서 어떻게 선실을 탈출하는지 알아보고, 태풍과 산사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응급처치체험관



태풍안전체험관



화재안전체험관은 화재 발생 시 신고방법과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법, 화재현장에서 안전하게 탈출하는 방법을 배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4층의 **화재안전체험관**은 완강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건물이 많아 화재 등의 사고로 엘리베이터, 계단 이용이 힘들다면 완강기를 통해서 탈출해야 합니다. 완강기 사용법은 어렵지는 않지만 위급한 상황에 높은 건물에서 처음 보는 줄에 의지해서 내려가는 것은 큰 두려움이 동반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미리 체험을 통해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익힌다면 위급상황 시 큰 도움이 됩니다.



화재안전체험관



화재안전체험관(완강기체험)



“설마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경험해 본 적 없기 때문인데 사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학생안전체험관에서 체험했던 경험을 기억한다면 우리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안전체험관은 인천의 모든 학생이 더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하철 이용(인천2호선)**
모리내시장역 4번 출구
구월초 방면으로 도보 12분(870m)
- **버스이용**
531, 532 : 학생안전체험관 하차(39284)
531, 532 : 롯데캐슬후문 하차(39285)
536 : 남동소방서 하차(39587)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안전체험관
대표번호
☎ 032-770-9889

인천형국악프로젝트의 또 다른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악합창단



박현아 | 중등교육과

“

10월의 어느 토요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이하 국악합창단)」의 연습이 있는
인천대중예술고의 연습실은
열정과 생기로 가득 차 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초등부 아이들은 스스럼없이
“선생님! 심봉사 눈뜨는 대목
음악 틀어주세요!”라고 요청한다.
잠시 후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아이들은 덩실덩실,
때로는 k-pop에서 볼 수 있는
방송댄스를 선보인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k-pop이라는 생각이 든다.

”



누구도 성공을 예측하지 못했던 시작

연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악부분의 축소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국악은 단순히 음악의 장르가 아닌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조상의 삶이자 역사이기 때문이다. 이런 국악의 보존과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대중에게 국악은 여전히 낯설다. “10명? 16명이나 오려나? 안되면 중창으로 해보자” 처음 국악합창단을 기획한 인천대중예술고 최현주¹⁾ 교감선생님의 이야기였다. 국악의 대중화와 일반화를 목표로 기획된 국악합창단은 2021년 12월, 당시 J방송국 퓨전국악 경쟁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몰고 있던 소리꾼 ‘백현호’씨를 지휘자로 위촉하고 연령과 지역을 모두 열어놓고 단원모집을 시작했다. 관심과 신청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무려 450여명이 신청하여 오히려 오디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최초로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온라인 예비학교를 5주간 운영하게 되었다. 영상, 음악, 패널 운영 등 국악합창단 지원단은 발빠르게 움직이며 백현호 지휘자와 손발을 맞춰 성황리에 온라인 예비학교가 진행되었다. 이후 70명의 단원이 최종 선발되었고 3월 19일 창단식을 마쳤다.

인천교육가족의 가슴을 울린 창단 연주회

선발된 단원들은 초등부와 중·고·성인부로 편성되어 매주 토요일 연습을 진행했다. 민요를 시작으로 우리 소리의 발성을 배우고 소리북에 맞춰 소리를 만들어 갔다. 더불어 대중의 귀에 익숙한 합창을 접목하여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갔다. 3달여가 지난 7월 5일(화)

1) 최초기획자의 지향점은 ‘법고창신’이라고 이야기한다. : 국악은 민족의 얼, 역사, 삶의 현상이기에 시대 흐름속에서도 법고창신(옛것을 지켜 새로움을 창조한다)의 자세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계승되어야 한다.



19시부터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 가족과 일반시민 500여명을 초대²⁾하여 창단연주회가 개최되었다. 합창단은 국악기, 서양악기, 드럼 세트, 신디사이저 등 동서양 음악과 클래식, 팝을 넘나드는 반주편성에 맞춰 연희팀과 함께 무대에 올라 판소리, 단가 등 우리 전통 소리와 대중음악, 합창과 매시업³⁾된 퓨전국악 합창곡 등 총 9곡을 발표하게 되었다. 2시간여의 긴 공연에도 매 순간마다 박수와 열광이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아리랑 연곡이 이어질 때, 가슴이 벅차올라 감격에 젖었다는 관객들을 다수 만날 수 있었다.

심청이의 고장, 인천, 국악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 심청이었다. 심청이가 빠졌다는 인당수는 인천의 섬, 백령도 인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백령도에 가면 인당수와 심청이가 환생했다는 연봉바위가 바라보이는 곳에 심청각을 만나볼 수 있으며, 이 곳에는 심청전과 관련된 판소리, 영화 대본, 고서 등도 전시되어있다. 이런 백령도에 인천 지역 특화 예술교육과정으로 판소리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었고 이는 판소리 합창단, 즉 국악합창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대중들이 국악을 낯설게 여기는 원인 중 하나는 클래식이나 대중음악에 사용된 서양음악어법은 대부분 화성 중심이기에 우리 음악의 특징인 선율의 다양한 진행과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착안하여 판소리와 합창을 접목한 국악합창단이 시작되었다. 국악합창단은 단순히 동아리나 예술 단체가 아니다. 국악합창단을 운영하기 위해 기존의 민요와 판소리, 전통 음악을 현대 합창곡으로 편곡하는 작업이 우선된다. 또한 제작된 국악 합창 음원과 악보, 합창단의 연주 음원 등은 예술 교사 온라인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어 학교 현장에 확산된다. 이렇듯 국악합창단을 운영함으로써 국악의 현대화, 대중화, 일반화를 위해 교재와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고, 이를 체험적 교육과정으로 제공하며 이는 다시 우수사례로 단위학교로 공유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국악교육의 출구로서 전국 최초로 교육청 산하 국악합창단을 창단한 것 이외에도 「강화, 그리운 금강산 가곡제」 운영을 통해, 가곡 ‘그리운 금강산’의 작사가, 작곡가의 고향인 강화지역에 동요, 가곡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발표회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향유하였다.



우리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악합창단과 미래교육

국악합창단은 창단연주회 이후 너무도 바쁜 일정을 보냈다. 고창군의 초청을 받아 ‘2022 대한민국판소리한마당⁴⁾’에 차세대국악으로 공연에 참가하였으며, 인천 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바람의 연’축제에서 찬조 공연을 펼치는 등 다수의 무대에 초청받고 있다. 12월 6일, 제1회 정기연주회도 무사히 마쳤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판소리 심청가를 모티브로 이야기가 있는 10여곡의 퓨전합창곡을 선보였다. 누군가는 이런 게 국악인가요? 라로 묻기도 한다. 때로는 이 길이 맞나? 스스로 자문할 때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달을 흠모했고, 달에 착륙했다. 국악은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우리의 정신이고 가치이다. 이런 도전이 거듭되어 국악은 변화하고 발전될 것이며,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일반화 되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것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 AI 등의 기술로 대변되는 미래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술로 느끼고 따스한 감수성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여 살아가는 것. 함께 노래하면서 내 목소리가 세상에 단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를 아름답게 맞춰가는 것. 그 시작에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악합창단이 있다.

2) 초대권을 배부했는데 오픈 후 30여분만에 매진되었다.

3) 서로 다른 곡을 조합하여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는 음악용어

4) 국내 최대 판소리축제, 행사 운영측인 고창군과 (사)동리문화사업회는 국악예술교육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인천 청소년, 다~누리리라!

“
‘즐길 수 있고 꿈을 키울 수 있으며 때로는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셨나요?
초등학생 시절에는 놀이터 한구석을 아지트 삼아 친구들과 놀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때처럼 놀이터를 아지트 삼을 수도 없거니와 어디를 가도 돈이 들어 부담스럽지 않나요?
인천 청소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청소년 문화공간 다누리를 소개합니다.”



청소년문화공간
다누리

마음껏 누리는 청소년 문화공간, 다누리

청소년 문화공간 다누리는 청소년의 미래를 응원하고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공개된 곳입니다.
토론, 영상 제작, 녹음 등의 창작 작업과 다양한 강연, 편안한 휴식을 위한 공간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청소년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인천시 남동구 석촌로 14번길 7’의 주소를 찾아가면 하늘색 대문이 열려 있고 그 안으로 작은 정원과 흑갈색
2층 건물이 보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다누리’는 2019년 9월부터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누리’라고 표시해놓지 않으면 오래된 예쁜 주택처럼 보입니다.



다누리

먼저 입구에 들어서면 사물함이 있어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가볍게 들어서면 왼편으로 누리다방이 있습니다.
다누리의 마당 정원을 바라보며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차를 마시기 좋은 곳입니다.



누리다방

만화&보드방은 누리다방에서 바로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친구들과 어디에서 만날지 고민하지 않고 보드게임을 할 수 있고
혼자 와도 차를 마시면서 만화책을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만화&보드방

1층 별관에 위치한 뮤직박스 올림과 스튜디오 상상은 크리에이터의 꿈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창작공간입니다. 뮤직박스 올림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작곡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스튜디오 상상은 녹화, 녹음과 편집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누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대관할 수 있습니다. 영상, 음향, 음악에 관심이 있고 영상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면 이곳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상상



뮤직박스 올림



사람책 도서관, 휴먼라이브러리

다누리 1층에서는 휴먼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사람이 곧 책’이라는 의미로 책 대신에 재능 또는 경험을 기부한 휴먼북으로 이루어진 사람책 도서관이에요. 휴먼라이브러리에는 건축사, 임상병리사 등의 다양한 직업군과 경제경영, 문학, 심리, 역사 분야의 전문가들이 휴먼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누리 홈페이지 회원인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1:1, 1:5, 1:단체 등으로 휴먼북 만남 신청이 가능하며, 책을 읽듯이 휴먼북을 통해 지식, 경험, 지혜에 대해 듣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2층에는 우리모여방 1, 2와 책어울방, 야외공간인 달빛 옥상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가장 먼저 누리마루가 우리를 반깁니다. 이곳에서는 다누리의 1층 마당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누리마루



휴먼라이브러리



누리마루에서 이어지는 우리모여방 1, 2 두 곳 역시 대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대 8인까지 수용 가능하고 편안하게 대화하거나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책어울방은 누구든지 편안하게 책을 읽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2층은 야외 공간인 달빛 옥상으로 이어지는데 야외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서 실내에 있다가 잠시 바깥바람을 마시며 쉴 수 있습니다.



우리모여방



다~누리



책어울방



다~누리라, 청소년!

다누리에서는 매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누리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 자수 에코백 만들기, 팝아트 초상화 그리기, 특수분장사 체험, 미래 경영자와 마케터 진로 탐색 멘토링 등 다양한 강연과 행사를 진행했기에 앞으로의 프로그램도 기대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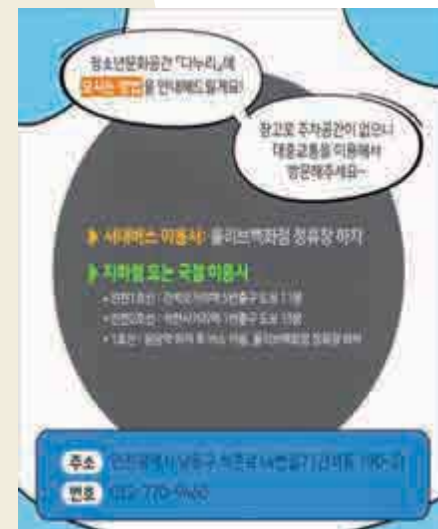
12월에는 휴먼북소통 프로그램으로 ‘창업과 소통(10대 사장님 되기)’과 메이커프로그램(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 등) 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강연에 관심이 있다면, 다누리 홈페이지 다누리 소식에서 매월 진행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누리 주인은 나야 나, 청소년 자치기구「누리다」

다누리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치기구 활동을 통해 다누리 내의 다양한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치기구 캠프, 플리마켓 기획·운영, 휴먼북 영상 인터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니 다누리에 관심있는 청소년이라면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도 좋고, 여럿이 와도 좋은 집 다음으로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는 다누리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둘째, 넷째 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은 휴관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품은 더 큰 인천교육을 위한 마중물, '인천바로알기교육'

신미경 | 동아시아시민교육과

인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인천

인천은 과거 한반도의 관문을 여는 항구도시 역할을 했고, 현재는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통한 국제교류의 주요 허브도시로 자리하고 있다. 또한 인천은 국제도시, 개항장 역사의 도시, 168개 섬의 도시, 북한 접경지로서 평화의 길목이 되는 등 다양한 매력이 공존하는 도시다. 그러나 인천의 학생, 교사, 학부모와 시민들이 내가 숨쉬고 살고 있는 인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이에 우리교육청은 인천의 학생들이 내고장 인천을 바로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더 큰 세계의 리더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들은 인천의 미래인 학생들이 내고장을 기반으로 큰 꿈을 키우는 밑거름을 지원하도록 학부모와 시민들은 내고장 자긍심으로 각자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도록 인천바로알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의 구석구석을 내가 발로 딛는 '인천길탐방'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뛰어넘어 인천을 보다 넓게 경험하고 알아가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인천길탐방 20개 코스씩 61코스를 개발하였고 2024년까지 39개 코스를 세분화 보완하여 총 100코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2022년 하반기에는 인천 학생, 교원, 시민 대상으로 '인천시민이 만드는 인천길탐방' 공모전을 운영하였다. 인천의 역사, 문화, 생태, 산업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닌 곳곳을 직접 걷고 인천길탐방 해설사의 해설로 더욱 깊게 내 고장에 대하여 알아가는 체험프로그램은 2022년 연간 100학급 지원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매년 100학급씩 지원을 늘려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바로알기 전문 해설사를 매년 30명씩 양성하여 2026년까지 100명 이상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바로알기'가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현장체험 학습, 동아리 활동 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교수학습자료 1종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매년 15개 학급, 동아리 공모사업을 통하여 교육과정연계 운영 지원 및 우수사례들을 교원연수하고 있다. 인천바로알기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각 코스 탐방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OBS경인TV와 미니시리즈 6부작을 제작하여 8월 4주~10월 1주까지 매주 토요일 방영하였다. 학생들이 해설사와 함께 또는 스스로 탐구하여 친구들과 함께 인천 권역별 코스들을 탐방하는 모습을 담았다. 이후 영상자료는 각 학교로 배부 및 우리교육청 youtube에 업로드하여 다시보기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41개 코스 중 인천으로부터 멀리 위치해 있어 직접 탐방하기 어려운 서해5도(백령도, 연평도, 소연평도, 대청도, 소청도)를 영상으로 경험하고 교과와 연계하여 수업할 수 있도록 영상 5종과 수업활용 가이드북을 2023년 3월에 배부할 예정이다. 인천길탐방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교원, 학부모들은 "인천에 이런 곳이 있었나요?", "이곳을 많이 다녔지만 이런 의미있는 곳인 줄은 몰랐네요.", "오늘 알게된 이야기들과 이 가슴 벅참을 학생들에게도 경험시켜주고 싶네요.", "코로나로 현장체험학습 경험이 없던 아이들에게 인천 길을 직접 걷고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니 참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인천이 새롭게 보이고 애정이 생기네요." 등 인천길탐방 체험을 소중한 경험으로 가슴에 담아 간다.

인천의 민주화 현장에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인천민주로드'

6.10. 민주화운동을 있게 한 인천 5.3 민주항쟁, 동일방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 7.80년대 치열했던 노동운동이 일어났던 부평공단 일대 등 이밖에도 노동과 민주주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현장이 인천에는 많다. 교과서 안의 사진, 텔레비전 화면 속 나와 멀리 있는 사진들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민주로드'코스는 7개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노동인권과 민주주의, 인천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인천민주로드 전문 길잡이의 해설과 학생용 워크북을 지원한다. 2022년까지는 내용의 수준을 고려하여 중고등학생과 교원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해설의 내용을 쉽게 보완하여 점차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도 확대 운영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민주, 평화, 인권의 역사를 되새기고 소중함을 느끼며 세계시민성의 주춧돌을 쌓으리라 기대한다.

세계를 품은 더 큰 인천교육을 꿈꾸며

아는만큼 보이고, 알게되면 관심과 애정이 생기게 된다. 인천의 학생, 교사, 학부모님이 인천바로알기 사업을 통해 과거로부터 인천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이야기와 숨결을 느끼며 인천을 알아가는 기쁨과 인천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관심, 사랑하는 마음, 인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자라나기를 바란다. 또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병행된 인천바로알기 사업을 통해 우리 인천의 학생 한명 한명 모두가 세계를 품은 더 큰 인천교육으로 학생성공시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응원한다.

다시 On!
체험하며 즐기는
행복한 배움의 향연

‘인천수학축전’ 현장

우리가 사는 인천에는 인천어린이과학관, 인천학생과학관이 있고 전국에도 많은 과학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관과 과학체험이 익숙한 만큼, ‘수학체험’이라는 말은 조금은 낯설기도 합니다. 사실 수학은 과학만큼이나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가까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에서 열린 제8회 인천수학축전은 수학이라면 숫자만 봐도 머리 아프다는 분들도 수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생생한 수학체험 현장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꿈나눔 & 꿈겨름 마당



‘다시 ON! 체험하며 즐기는 행복한 수학’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대면 축제에는 4가지 갈래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꿈나눔마당, 꿈겨름마당, 꿈이름마당, 꿈보람마당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 **꿈나눔마당**은 수학학생동아리의 체험공간으로 각 학교 수학 동아리에서는 수학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고심 끝에 각자만의 아이디어로 꾸몄습니다.

아이큐 퍼즐을 이용해 램프를 만들고 한 붓 그리기를 활용한 무드등, 모스부호 책갈피,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개념을 이용한 스트링 아트 등 직접 체험을 통해 수학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주 접하는 생활용품에 수학이 더해져 만드는 재미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수학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꿈겨름마당에서는 24개의 고등학교 수학동아리가 참여해 그동안 진행한 수학주제탐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수학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학 용어 말하기 한마당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수학 용어 말하기에서는 소품과 복장, 그리고 춤을 준비해 수학이 어렵지 않음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꿈이름 & 꿈보람 마당



꿈이름 마당에서는 수학에 흥미가 없고 자신감이 떨어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학습 코칭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수학 클리닉’으로 수학에 자신 없는 이유를 알아보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꿈보람마당에서는 초등학생은 칠교, 중학생은 피타고라스, 고등학생은 하노이 탑 퍼즐을 사용하여 학교급별로 참여한 ‘도전! 퍼즐 마스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림 또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 수학을 예술로 표현한 디자인 마스터(Math Art) 작품 전시회도 진행하였으며 모든 작품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었기에 수학을 예술로 표현한 작품들이 놀라웠습니다.

수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후배와의 만남과 제8회 인천수학축전을 포함한 역대 주제곡으로 꾸며진 수선의 발(수학선생님들의 발칙한 도발)의 수학콘서트도 열렸습니다.

인천수학축전이 하루로 끝나기에는 아쉬움이 많았지만 비대면 온라인 인천수학축전은 11월 13일(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70개 팀의 수학학생동아리 활동 영상과 인천 학생 통계활용캠프에서 수상한 포스터와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었고 대면 축제에서 전시했던 디자인 마스터, 매스 아트(Math Art) 작품도 만나 볼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 진행될 제9회 인천수학축전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제8회 인천수학축전 온라인 입장하기



독서습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방과 후 학생들에게 내주는 과제를 숙제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교에서 내준 숙제가 아니라 일상에서도 숙제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의 양식이라며 적극적으로 권하는 책 읽기 역시 아이들에게는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서 권하는 책을 숙제하는 것처럼 읽는다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책 읽기는 취미와 습관이 된다면 자신에게 정말 좋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책을 읽어야 할까요?

“책을 읽어도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읽은 것 같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요.” 혹시 이렇게 아이가 말한다면 잊어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세요.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읽은 책의 내용을 완벽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책 읽기도 기술과 경험을 쌓아야 책 읽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책을 더 잘 읽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자꾸 잊어 버린다고 책 읽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많은 문장을 알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순간 어휘력이 늘고 이해력이 높아져 작문 실력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순간에는 뇌가 활동하고 있기에 두뇌에 자극을 주어 치매와 같은 정신 질환을 예방해 주기도 합니다.

책 읽기를 통한 변화를 쉽사리 체감하기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독서를 계속하면 독서력이 좋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책을 계속 읽게 되면 집중력도 조금씩 늘고 나의 세계가 아닌 타인의 세계를 알게 되어 다른사람에 대한 공감력도 높아지고 상상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 ✓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장을 익히고 어휘력이 늘어나요.
- ✓ 두뇌에 자극을 주며 문해력, 집중력이 점차 길러져요.
- ✓ 다양한 이야기를 간접 체험하며 공감 지수가 높아지고 상상력을 넓힐 수 있어요.
- ✓ 이야기나 지식을 접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책 읽기가 좋아지는 독서습관 만들기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 책 읽기가 숙제처럼 느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책읽기 습관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독서습관을 위해서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하기를 권합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처럼 책 읽는 주변 환경이 중요합니다. 먼저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지 말고 보호자가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옆에서 같이 읽게 될 것입니다. 어릴 때는 어른들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지만 아이가 혼자 책을 읽게 된 후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글을 알아도 어느 정도 부모님이 함께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아이들이 즐겁게 받아들여 책 읽는 것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만듭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 규칙적으로 책을 읽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 읽고 책 내용에 관해 이야기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면 책을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아이와 함께 집 주변 도서관 가는 것도 좋습니다. 도서관에는 많은 책이 있고 책을 보는 사람이 또한 많기에 이러한 환경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와 같이 책을 고르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책 읽기 즐거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 가정에서는 보호자님께서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 아이가 혼자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더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 잠자기 전 시간을 정해두고 규칙적으로 꾸준히 책을 읽어주세요.
- 책 한 권의 모든 내용을 다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읽는 편이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할 수 있어요.
- 도서관을 자주 방문해 책이 있는 환경에 익숙해지고 좋아하는 책을 직접 고르도록 해주세요.



독서습관, 재미를 느껴야 잘 길러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책을 많이 읽어 책 읽기의 장점을 누렸으면 좋겠지만 자칫 해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가 읽을 책을 고를 때 부모의 욕심으로 책을 골라주지 말고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권의 책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겠지만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것 역시 글의 구조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글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한 권만 반복해서 읽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책 읽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처음 몇 페이지는 같이 읽으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주고 스스로 읽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습관은 오랫동안 꾸준히 반복을 통해서 익혀지는 행동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독서습관 만드는 방법을 꾸준히 반복해 주실 것을 권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독서 습관 속에 더 큰 행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책은 아이가 먼저 고르도록!

좋은 책을 먼저 골라주고 싶을 수 있지만 권장하는 책만 읽게 되면 자칫 아이의 흥미를 떨어트릴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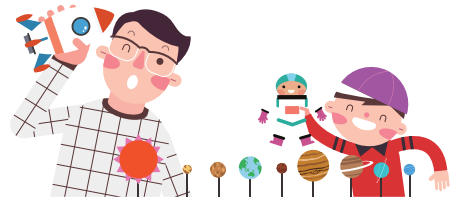
편향된 독서, 반드시 나쁜 습관은 아닙니다.

한 분야 또는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는다면 다양한 책을 읽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 수 있지만 반복 도서는 글의 구조나 흐름 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중력이 없어 책을 읽기 어려워하는 아이?

혹, 집중하지 못한다면 처음 몇 페이지는 같이 읽으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 좋습니다. 흥미를 끌어내면 스스로 읽기 훨씬 수월합니다.

백성하 | 창의인재교육과



3년 만에 직접 만나는 과학축제의 장

지난 10월 28일(금)~10월 29일(토) 2일간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에서는 수많은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그리고 시민들이 가을을 즐기며 과학을 누리는 제24회 인천과학대제전, 그 생동감 넘치는 과학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과학 행사를 진행할 수 없었는데, 3년 만에 과학을 사랑하는 구성원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과학대제전을 즐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움추려 있었던 과학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라보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설렘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이 주인되는 인천과학대제전

인천과학대제전은 인천과학사랑지원단 학생위원과 교사위원이 주축이 되어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대제전 응원 이벤트, 참여인증 이벤트, 대제전 골든벨, 보물찾기, 대제전 도장깨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가장 큰 행사인 참여형 체험부스는 과학, 환경, 발명, 융합 동아리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동아리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들이 동아리에서 운영하는 주제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도록 '인천과학사랑.kr' 홈페이지에 탑재했으며, 2일 간의 참여형 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과학교육에 대한 열정을 참여한 모든 이들과 나누었다.

초등학생의 체험부스에 참여한 가족과 시민들은 어쩔 아이들이 이렇게 설명을 잘하고 잘 안내하는지 감탄에 감탄을 거듭했고 중·고등학생들이 운영하는 부스에서는 포대들의 설명을 들으며 운영학생과 참여학생들이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학생성공시대를 열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우리가 말하는 과학문화

2020년부터 코로나 상황으로 직접 만남이 어려운 기간에는 온라인을 통한 체험부스 운영과 과학주제 발표가 대제전의 주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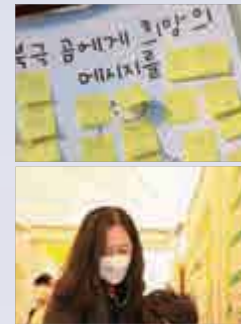
3년 만의 대면활동이 가능한

올해는 온라인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실제 무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주제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3분 이내에 주제를 설명하는 '3분 간의 과학소통', 친구들과의 과학수다를 하는 '과수다', 우리 인천의 랜드마크를 과학적 시각으로 표현한 '우리동네 과학명소', 자연을 관찰하며 생명존중을 생각하는 '나만의 자연관찰 영상일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과학이라는 공통 영역이지만 각기 색깔이 다른 발표마당은 발표자와 공감하며 사회를 보는 학생위원 뿐만아니라 긴장감을 견디고 당당하게 자신만의 발표를 진행하는 초·중·고등학생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탄할 수 밖에 없었다.

환경을 생각하는 행사, 지구를 살리는 길

어릴 때부터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다양한 활동도 살펴볼 수 있었다. 1회용품 없는 행사는 운영하기 위해서 개인컵 사용하기, 개인컵이 준비되지 않은 참여객을 위한 다회용컵 활용, 투명 페트병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자원순환에 대한 캠페인과 함께 페트병 수거기도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이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지구를 생각하는 학생들의 생각과 노력을 담은 포스터가 전시된 전시마당에서는 QR코드를 통해 학생들의 지구사랑 동영상을 보며 환경교육도시 인천의 저력을 볼 수 있었다.

인천에서 세계로

제24회 인천과학대제전 주제인 '과학의 빛, 인천에서 세계로 쏘아 올린다'는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 발사의 성공에 대한 긍지와 함께 과학의 힘이 인천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인천과학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라오스, 베트남, 일본의 선생님들이 함께 안남고등학교, 인천포스코고등학교, 만월중학교와 연계하여 참여하였으며 우리 아이들의 뛰어난 역량과 동아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제전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속적인 교류와 연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과학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며 인천과학대제전은 그 소통의 마당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제25회 인천과학대제전 기대하세요

직접 얼굴을 맞대고 체험한 제24회 인천과학대제전, 코로나 상황이 학생들이 주인인 과학축제의 전통을 단절시킬까 하는 우려는 이들간의 행사를 통해 기우였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선생님과 학생들은 과학을 통해 함께 즐기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력이 있었으며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은 우리 학생들의 성장을 큰 박수로 마음껏 응원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시간이 너무 짧아요. 금, 토, 일 3일 운영해주세요.', '하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다 하지를 못했어요.', '골든벨 더 해주세요'...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제24회 인천과학대제전에 참여하면서 요청한 내용이다. 즐거운 과학축제 한마당이었지만 더 하고 싶은 진한 아쉬움이 아이들과 시민들의 마음에 남아 있다. 내년 제25회 인천과학대제전은 더 다채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한다.

부모는 안심, 아이는 행복! 인천예송유치원

전지은 | 인천예송유치원

유아 발달에 최적화된 교육기관



인천예송유치원(원장 이정희)은 송도국제도시에 개원한 지 6년이 된 공립 단설유치원입니다. 송도 내에서 가장 먼저 개원한 제1호 공립 단설유치원으로서, 최근 개원한 2호(송도꿈), 3호(미송) 단설유치원들과 함께 송도의 유아교육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인천예송유치원의 면적은 4,856㎡(건물 연면적)로 신도시에 개교하는 초·중학교들의 면적과 견줄 만큼 큰 규모입니다. 이 넓은 교육시설 안에는 다양한 특별체험실(요리실, 직업체험실), 대강당, 블록방, 실내놀이터, 도서관 및 유아의 연령별 발달에 적합한 환경으로 구성된 교실, 화장실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환경 덕분에 예송유치원 어린이들은 매일매일 즐겁게 놀이하며 유치원 안에서 다양하고 창의로운 놀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이정희 원장은 개원 6년차인 올해를 기점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유아들의 놀이 및 교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전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천 아이 안심유치원’ 공모에 지원하여 우리 유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심유치원에 선정되면서 유아 화장실 내 안전부터 유아들이 직접 만지고 놀이하는 교육자료의 위생·청결, 그리고 유치원 외부 환경의 안전까지 두루 살펴보고 아이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도 지원하여 모래놀이터 그늘막 설치, 안전한 등하원을 위한 화상인터폰 추가 설치, 원내에 출입할 수 있는 차량을 제한하기 위한 출입통제 장치(주차차단기)설치, 유치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 조경 울타리 대신 더 견고하고 안전한 철제 울타리를 설치까지 진행하면서 안전으로 더욱 공고해진 인천예송유치원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행복,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유치원



학부모님들은 “마음 편히 아이들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아요.” “소소하지만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학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고 하나 하나 개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라며 유치원 환경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예송유치원은 유아와 학부모,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인천예송유치원 안에서 유아들이 안심하고 뛰어 놀며 꿈과 끼, 희망을 펼쳐나가길 기대해봅니다.

2022년 예송유치원의 안전 관련 환경 개선 내용

- 놀잇감 자외선 소독기 구입
- 유아 화장실 안심 벨 설치
- 유아 화장실 온수조절장치 설치
- 실외 모래놀이터 흙먼지 털이기 설치
- 실외 모래놀이터 그늘막 설치
- 유아 등하원장소 내 화상 인터폰 추가 설치
- 유치원 정문 차량 출입통제장치 (주차차단기)설치
- 유치원 시설 주변 철제 울타리 조성
- 유치원 대근육활동실(강당) 공기정화장치 설치

교사, 수업을 통해 성장을 말하다!

제1회 인천 초등 수업사례 공모전



곽지순 | 초등교육과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학령인구 감소, 교육격차, 교육회복 등 급격한 시대 변화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모든 학생의 미래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혁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우리 교육청은 당면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모든 학생들이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학생성공시대’**라는 지향점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디지털 AI 교육,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생태전환교육,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현을 위한 민주 시민교육 등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계의 발걸음은 매우 분주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미래교육은 학생들과 만나는 지금 여기 교실 속 수업을 통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맞춤식 환경교육〉을 시도했으나 무늬만 굴현동 학습자료였지 알맹이는 부실한 것 같았다. 그때서야 학생들도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환경 문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나는 학생들에게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입식 반복 교육을 진행해 왔다. 환경 문제에 대한 지식을 학생들 스스로 찾아볼 기회는 주지 못했다. 올 해는 학생들과 환경에 대해 지식을 함께 쌓고 싶었다. 나에게 그런 기회는 ‘독서동아리 공모’로 시작되었다.

— 제1회 초등 수업사례 공모전 우수작, ‘굴현동의 〈책 읽는 환경 파수꾼〉으로 담당해지기’ 중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결손으로 인한 학습·심리·정서·사회성·체력 회복에 이르기까지 교육회복을 위한 수많은 예산과 정책을 통해 교육구성원 모두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의 성장과 성공을 만들어가는 촘촘한 지원은 지금 여기 교실에서 학생을 면밀히 관찰하며 맞춤형 지원 방안을 찾아 나가는 선생님들의 관심과 손길 속에서 통해 가능합니다.

방과후 한글 튜트반을 처음 계획했던 것은 온전히 준이의 한글 해득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신청하면서 한글 튜트반의 정체성은 이리저리 흔들렸고, 나름 준이의 학습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했으나 준이의 한글 학습은 제자리걸음이었다. ㄱ, ㄴ, ㄷ을 채 떼지 못 한다. ㄱ을 10분 정도 읽고 쓰고 그려보고 자석 카드로 놀이도 해 보고 유도로 만들어보고 해도, 다시 ㄱ을 놓고 뭐였지?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못한다. 어떤 활동을 하던 옆에 있는 친구를 따라할 뿐이었다.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부모님께도 자주 전화를 드렸다.

〈중략〉

준이는 학습 장애가 있는 게 맞았다. 다만 정확한 진단이 필요했고, 나는 학습 장애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연수를 들으면 들을수록 준이는 난독증과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다른 부분에 대한 이해나 활동을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데 유독 한글 해득이 안되는 경우 난독증을 의심해 봐야 했다. 난독증이 맞다면 여태 준이에게 해왔던 한글 학습 지도 방법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 제1회 초등 수업사례 공모전 우수작, ‘단 한 명을 위한 한글 전문가’ 중에서..

그런 점에서 학생성공시대를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여기 교실을 지키는 선생님께 있습니다. 수업의 작은 변화를 만들고 배움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도전과 성장이 학생들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미래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며 절망하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밝은 웃음과 동료 교사들과의 나눔을 통해 다시 만들어 나가는 작은 성장과 성공이 교육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갑니다.

한창 장래희망을 이야기하던 중,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 꿈인 우리 반 학생이 제게 “선생님은 국가대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저는 그 이유를 물었는데 그 친구가 말하길, “나 한국 와서 처음 선생님 만났고 다른 선생님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 한국 대표예요.”라고 말해줘서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이 학생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한국인’ 하면 나를 떠올리겠구나.’ 학생들을 대할 때 말과 행동에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찾아와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우리 국가대표들에게 매일매일 지나치게 과분한 사랑을 받는 저는, 국가대표 선생님입니다.

— 제1회 초등 수업사례 공모전 우수작, ‘국가대표 1학년과 국가대표 선생님’ 중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선생님들의 고군분투기, 신규 선생님들의 성장통과 고경력 선생님의 교육 성장 회고록, 좌충우돌 1학년 교실 이야기, 성공한 전담교사로 살아남기, 더불어 성장하는 학년, 전학공 이야기 등..

제1회 초등 수업사례 공모전은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학생, 동료 교사와 만나며 겪은 실패와 좌절, 계속되는 도전과 성장, 그리고 작은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생생한 선생님들의 수업 사례와 성장 이야기들을 엮어보고자 기획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수업 경험과 교육성찰이 고스란히 녹여진 36편의 소중한 성장 이야기들이 모였습니다.

보람과 긍지로 학교를 지탱하던 선생님들이었는데, 주변의 부정적 시선과 다양한 사건, 사고, 민원 속에서 선생님들의 자존감이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에 부여되는 짐은 무거워지고 갈수록 금쪽이들이 많아지면서 교실 속에서 홀로 어려운 시간을 온전히 감내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선생님들께 혼자가 아니라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제1회 초등 수업사례 공모전을 통해 선생님들이 담담하게 써 내려간 36편의 성장 이야기들이 오늘도 교실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실 선생님들에게 위로와 희망으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이 수업과 교실 속 경험들을 이후 함께 공감과 공유로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성장 이야기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1회 초등 수업사례
니눔 공모전 다운받기

우리 학교는 우리가 만들어가요!

인천가현초 학생자치동아리가 만들어가는 즐거운학교

최예지 | 인천가현초등학교

인천가현초등학교의 학생자치동아리는 학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실천하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더불어 했으면 하는 행사들을 직접 개최하여 학생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자치동아리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합니다.

01. 소속감과 자긍심을 세웠어요

「학생자치동아리」는 학기초에 홍보를 통해 학교에 관심이 많고, 봉사하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학생자치동아리 부원들은 월 2회 이상 만나서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세웠습니다. 모임을 통해 학교 운영에 학생의 주도적인 역할과 즐겁고 안전한 학교를 위한 다양한 활동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4월에 학생자치동아리 다함께 모여 발대식을 시작으로 첫 출발을 하였습니다.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 교장선생님께서도 적극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주셨고 자치동아리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셨습니다.

02. 행복가득한 학교를 만들었어요

스승의 날을 맞아 전체 학생들이 참여하는 ‘스승의날 편지 나무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설치된 트리에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매달며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트리에 걸렸던 메시지는 선생님들께 전달되며 마음이 오가는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 하였습니다. 1학기를 마치며 반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학급 단체 사진 공모전’을 자치동아리 주관 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반 친구들과의 단체사진을 찍으며 한층 친구들과 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03. 함께하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학생자치동아리를 친구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자치동아리를 상징하는 로고를 정하는 ‘내가 만드는 학생 자치동아리 로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예선에 뽑힌 학생들의 작품을 전교생의 투표를 통해 로고를 선정하였고, 이후 전교생의 투표를 통해 예선에 뽑힌 학생들의 작품 중 하나를 로고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현초등학교 학생들의 손에서 직접 탄생하고 뽑힌 로고는 배지로 제작되어 학교를 알리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04. 안전한 학교를 만들었어요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자 학생들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위험한 곳을 고쳐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우리 학교 위험 신고 인증샷 챌린지’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증샷에 남긴 장소는 학교에서 꼼꼼히 점검하여 더욱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자치동아리에서는 급식실에 마스크 걸이가 없어 급식을 먹을 때 마스크가 오염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급식실에 마스크 걸이를 설치하였습니다. 마스크 걸이 선정부터 마스크 걸이를 공수하여 붙이는 작업까지 하나하나 학생자치회의 손으로 직접 하였습니다.

05. 꿈과 끼를 펼치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10월 말에는 학생자치동아리 주최로 ‘어서와 장기자랑은 처음이지?’라는 주제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축제를 열었습니다. 예선을 통해 본선에 진출한 팀들이 대강당의 큰 무대에 올라 맘껏 각자의 끼를 발산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관람하며 행복한 가현교육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치동아리회 한 학생은 “학생자치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행사로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학생자치동아리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경험과 리더십을 쌓을 수 있었고, 학교 학생들은 코로나로 인해 조용했던 학교에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활발한 학교생활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인천가현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낸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것을 확인하며, 자율성과 능동성을 길러 민주시민 역량을 무럭무럭 키워가고 있습니다.



건강채움! 행복더함!

MOVE 프로젝트로 신나는 우리학교

최은정 | 인천송의초등학교

코로나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온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지루함과 답답함 속에서도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짐짓 예상하며, 2022년은 코로나와의 공존을 준비하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교육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올 한 해 인천송의초등학교 역시 코로나 대응을 넘어 더 나은 일상을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인천송의초등학교는 코로나19가 앓아간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되찾기 위해 '학교체육 되살리기'를 실천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저하된 학생 체력과 침체된 학교 분위기 문제의 돌파구를 신체활동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학생들은 몸을 움직이며 땀을 흘리고, 친구들과 소통하며 웃음을 터트렸습니다. 적막이 흘렀던 운동장에 다시 생동감이 피어났습니다. 학생들의 건강 채움, 행복더함으로 교육회복을 이끌어낸 인천송의초등학교 학교체육 MOVE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MOVE 프로젝트의 목적은 단순하고 또 분명합니다. 바로, 학생들을 다시 웃게, 뛰게, 건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MOVE 프로젝트 슬로건은 학생들의 움직임 **동기(Motivation)**를 자극하여, 적극적인 도전으로 **발전(Overcome)**을 이루며, **자발적(Voluntary)**으로 **즐거움(Enjoyment)** 신체활동을 실천하고 생활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Motivation(동기)
움직임 밑거름 다지기

Overcome(발전)
도전을 거쳐 성장하기

Voluntary(자발성)
스스로 실천하기

Enjoyment(즐거움)
즐기며 생활화하기

MOVE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Motivation(동기)_움직임 밑거름 다지기**로 시작하였습니다. 밑거름은 탄탄한 기본계획과 교사의 뜨거운 열정으로 배합되었습니다. 학생 요구, 학교 여건,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2022학년도 학교체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학교체육활동과 체육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원 체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내형 체육교과 전문직학습공동체를 운영하였습니다. 교사들은 수업실천 사례와 수업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직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교사의 열정은 원력

수업에서 더욱 빛이 났습니다. '체육교과 원력수업은 이론 중심이다.'라는 한계를 벗어나 실시간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움직임을 수행하고 피드백을 교환하며 땀나는 수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움직임 밑거름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Overcome(발전)_도전을 거쳐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학생 성장은 학교스포츠클럽에서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인천송의초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급단위, 전교생참여, 여학생 총 3개 유형으로 다채롭게 운영되었습니다. 학급단위 유형은 같은 학급 학생으로 구성된 학교스포츠클럽입니다. 학급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종목을 선정하였고, 아침활동시간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17시간 이상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전교생참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여 운영된 학교스포츠클럽입니다. 2학기 시작과 함께 송의마라톤부를 조직하여, 87명의 학생들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아침(7:20~8:20)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송의마라톤부의 오전 마라톤 훈련으로 인천송의초등학교의 아침이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송의마라톤부는 체계적인 훈련을 거쳐 체력을 향상시켰고, 31명의 학생이 인천송도 국제마라톤대회 5km부문에 참여하여 모두 완주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여학생들로만 구성된 학교스포츠클럽입니다.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하여 3월 말부터 약 한 달여간 여학생 체육활동의 날을 운영하였고, 참가학생들로 송의탁구부를 조직하였습니다. 송의탁구부는 신체활동을 즐기는 학생들로만 구성되었기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외부대회 경험이 전무했지만 우리만의 노력으로 교육장배 리그에 이어서 교육감배 리그에서도 우승하여 전국학교스포츠클럽리그에 출전하는 행운을 경험하였습니다.

신체활동 친화적인 학교문화는 학생들의 **Voluntary(자발성)_스스로 실천하기**를 이끌어냈습니다. 학생들은 체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토요일, 일요일에도 학교로 나왔습니다. 토,일 주말을 온전히 학교에서 보내야하는 피구심판교육과, 매주 토요일 오전에 실시하는 신나는주말체육학교(탁구)는 희망자가 많아 선착순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운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건강체력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건강체력교실에도 적극적인 호응이었습니다. 2달여간 매주 2회 이른 아침(7:40~8:20)과 방과후(14:10~14:50) 프로그램에 빠짐없이 참여해야하는 조건을 성실히 지키며 활동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실천하였습니다.

MOVE 프로젝트가 신체활동을 학생 삶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고심한 회심의 가치는 **Enjoyment(즐거움)_즐기며 생활화하기**입니다.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고 또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학교 안팎에서 직간접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학교 밖으로는 지역사회 스포츠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학기별로 문학경기장을 방문하여 사제동행행사 스쿨데이를 운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교사와 함께 야구를 관람하고 건전한 스포츠문화를 체험하였습니다. 또한 선학빙상장을 방문하여 스케이트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학년체육대회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협력을 통한 성취감을 체험하고 신체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MOVE 프로젝트는 학생 건강체력 증진, 규칙적인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교우관계 증진,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만족도 상승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학교체육은 신체 건강을 넘어 심리 건강과 사회 건강 발달을 견인합니다. 건강한 학생, 건강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적, 문화적 여건이 마련되어야합니다. 환경과 문화가 뒷받침되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에 참여하며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교체육은 계속되어야하므로 인천송의초등학교는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신나게 땀 흘리는 학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2년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슬기로운 알바생활'을 소개합니다!

유주리 | 동아시아시민교육과

겨울 방학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인 자녀나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와 관련 해서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은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할까요? 보통은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고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임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등 일을 하며 알아야 할 근로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일하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알아야 할 노동법 주제 20가지를 선정하여 '2022년 청소년 노동인권수첩'을 제작하였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수첩에는 근로기준법의 핵심 내용과 실제 많이 발생하는 사례 내용, 알바를 할 때 필요한 tip 등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현실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노동인권 침해 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권리구제기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청소년 노동인권수첩은 '슬기로운 알바생활'이라는 주제로 일의 과정(알바 시작하기→알바하는 중→알바 그만두기)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인천디자인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김동은, 조예지)이 직접 그린 4컷 만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슬기로운 알바생활' 중 몇 가지 주제를 소개합니다.
(‘슬기로운 알바생활’ 전체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 노무사(유주리 노무사)가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2022년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청소년 노동인권 카톡채널 1:1 상담하기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창구안내

전화 상담 : 032-420-8264

카톡 상담 : 카카오톡 채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검색 후 채널추가

1:1채팅 QR코드 인식을 통해 손쉽게 친구 추가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휴게시간



인천광역시교육청

유튜브 채널 “인천교육청TV”

콘텐츠 추천 리뷰 Review



장주이 | 인천용학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진로수업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희반 학생 중 체조 선수를 꿈꾸는 학생이 있어 그 아이의 두 눈을 번쩍 뜨이게만 할 어떤 자료가 있는지 찾아 인천광역시교육청 유튜브에 오니깐 딱! 이 콘텐츠가 눈에 들어오지 뭐예요. 선생님들이 기계체조를 배우는 제목과 동공지진이 일어난 두 선생님들의 표정에 기계체조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며 클릭으로 이끅니다.



이 영상의 매력포인트는 바로 실제 선생님들께서 콘텐츠 진행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경험에서 나오는 여유롭고 차분한 진행으로 학생들을 인터뷰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기계체조를 직접 체험해보시는데요, 같은 교사로서 생각만 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운 기계체조를 용기있게 도전하고 부딪혀보는 모습이 생동감과 재미를 이끌어냅니다.

보기만해도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장면도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기계체조 동작을 알려주는 장면인데요. 안마, 마루, 평행봉 등 본인들이 맡고 있는 종목을 자신있게 선보이는 모습은 대한민국 기계체조 미래가 아주 밝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합니다. 카메라가 낮설어 인터뷰할 때는 다소 어색한 표정과 순수한 미소를 뽐냈던 친구들이 본인의 역량을 내뿜을 때 보이는 그 자신감은... 정말 멋지거든요. 인천에 기계체조를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학교와 공간이 있다는 것도 인천교육에 자부심도 동시에 들게 합니다.

이 영상은 유클있는 편집도 돋보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알려주는 기계체조를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모습은 연일 웃음을 자아냅니다. 왜냐면 초반에 두 선생님이 서로의 운동신경과 헬스경력을 경쟁하듯 자랑했거든요. 꾸밈없는 선생님들의 대화와 그 대화에 상반되는 기계체조 실력, 재미 포인트를 딱 알아낸 편집까지 삼박자가 고루 어우러져 재미있는 콘텐츠가 나왔네요. 후반부에는 우리 체조계의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열심히 연마하는 학생들에 대한 응원과 관심을 부탁하며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교사가 MC가 되어 살아있는 학교 현장을 찾아가 보는 콘텐츠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우리 인천의 멋진 꿈나무 인재들을 만나볼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가서서 ‘선생님이 간다_기계체조편’ 한번 시청해보세요!



선생님이 간다
유튜브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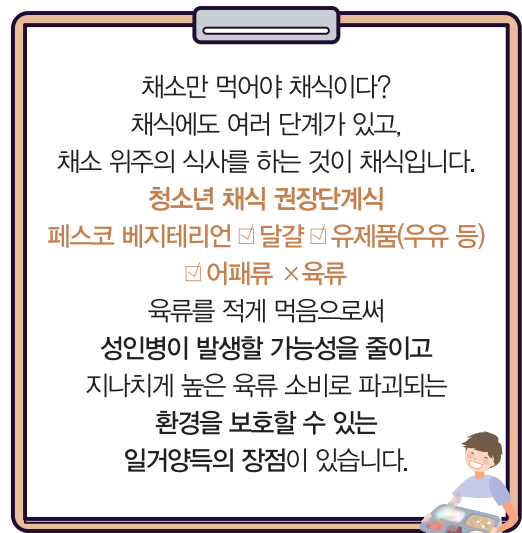
아이반찬 건강식당 채식밥상 백서

I Love
VEGAN!!

"채소를 많이 먹어야지."
"채소 반찬도 골고루 먹어야지."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의
큰 관심거리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편식하지 않고
채소를 잘 먹일 수 있을까"입니다.



"채소를 많이 먹어야지.", "채소 반찬도 골고루 먹어야지."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의 큰 관심거리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편식하지 않고 채소를 잘 먹일 수 있을까"입니다.
어릴 때는 채소를 잘 먹다가 자라는 과정에서 각종 패스트푸드와
육류 등에 입맛이 익숙해지면서 점점 채소 먹기를 꺼리게 됩니다.
집에서 채소 반찬을 정성을 들여 맛있게 만들어도 아이가 보는 등
마는 등 하며 고기류를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채소 반찬을 만드는
횟수가 적어집니다.
요즘 채식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학교에서도 채식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채식밥상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채소만 먹어야 채식이다?

흔히들 '채식한다 = 풀밭'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당연히 채식(菜食)의 채(菜)는 나물을 뜻하고 채소(菜蔬)의 채와 같으니 초록 무성한 나물들만 가득한 밥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채식의 여러 단계 중 채소와 과일만 섭취하는 단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단계에서 권장되는 채식은 육류만을 제외하고 달걀, 유제품, 어패류 등은 섭취하는 '페스코 베지테리언'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채식 식단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 단계에서의 채식은 육류를 먹지 않음으로써 성인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육류 소비를 자제하는 것이 환경과 기후를 지키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과도한 육류 소비는 기후를 파괴하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가축 사육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고 사료를 얻기 위해 산림을 파괴하지 않아도 되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채소만 먹으라고 하면 거부감이 들기 쉽지만 먹을 수 있는 종류도 다양하고 건강은 물론 환경까지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채식 식단을 꾸릴지 생각해 볼까요?

채식 식단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콩고기 등의 대체육을 떠올리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사실 채식은 생각보다 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특히 페스코 베지테리언 단계의 채식은 육류를 제외하고 모두 섭취가 가능하기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고구마나 채소로 만든 튀김, 잡채, 채소만두, 참치비빔밥 등도 가정에서도 도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맛있고 어렵지 않은 채식 식단으로 채식에 대한 허들을 낮추고 건강과 환경까지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채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채소 반찬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제철 재료로 우리의 밥상을 차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을 제철 음식에는 밤, 배, 은행, 토마토, 고구마 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밤밥,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달콤한 간식 고구마 샐러드, 두부와 채소만으로 만든 노릇노릇하고 고소한 두부전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채식과는 멀게만 느껴진 달걀말이 역시 우리 일상에 자리한 채식의 한 부분입니다.

페스코 베지테리언 단계의 채식으로 인정되고 속 재료에 대파나 당근 등 채소를 더해 더욱 다채롭고 건강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감자전, 홍합 토마토 파스타, 햄을 빼고 깎았, 계란, 참치 등을 채워 넣은 김밥, 팥이버섯으로 만드는 전과 달고 부드러워 먹기 좋은 양배추 싹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강한 채식은 다양합니다.

또한 요즘은 마트에서도 대체육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 튀김이나 볶음으로 만들어도 좋고, 채소 만두 등과 같은 비건 음식도 많으니 콩고기 등의 대체육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 채식 식단을 기회 삼아 오늘 반찬으로 시도해 봐도 좋겠습니다.

채식,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채식하면 고기를 섭취 못하고 오로지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에 완벽하고 영원한 채식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풀이나 채소만을 먹어야 한다는 오해는 버리는 것은 어떨까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채식을 위해 월 2회 페스코 베지테리언 식단의 VTS-day (학교급식의 채식여행)를 실시하여 채식반찬을 추가 제공하는 채식선택권이 마련 되어 있습니다.

기껏해야 학교에서 월에 두 번 실시하여 육류 소비만을 피하는 채식이 얼마나 환경보호가 되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에도 지구 반대편에는 태풍이 된다고 하잖아요. 한두 번의 시작도 모두가 같이 시작하면 환경 보호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쌀쌀한 찬 바람이 부는 이 겨울 조갯살을 넣은 따뜻한 미역국은 어떠십니까?

가정에서도 맛있는 채식을 접하기 좋은 바로 지금입니다.



자녀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사람들은 스마트폰 없이는 불안해하는데 이를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합니다. 어른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스마트폰 중독, 혹시 우리 자녀도 스마트폰 중독이진 않을까요?

혹시 우리 자녀도 스마트폰 중독?

현재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른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지켜보며 키웠고 학교에서도 아이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폰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2019년 20%, 2020년 23.3%, 2021년 24.2%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자녀가 매일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 화장실에 갈 때 스마트폰을 꼭 챙겨서 가져간다.
-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 한다.
-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앱이 30개 이상이다.
- 만약 위와 같다면 스마트폰 중독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면 우선 건강상 좋지 않습니다. 특히 잠자기 전 스마트폰하면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 수면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밤에 불을 끄고 사용하다 보면 눈의 피로도가 높아져 시력 저하와 안구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강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심하게 화를 내어 가족과의 사이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게임이나 동영상을 많이 보면 빠르고 강한 자극을 선호하여 느리고 약한 자극에서는 뇌가 잘 반응하지 않는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현실에 무감각해져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위험성과 문제점이 있는 스마트폰 중독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녀의 스마트폰 구입 시기를 늦춰야 하지만 결국 사줘야 할 날이 온다면 미리 위험성에 대해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해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이후에도 아이들 스스로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게임이나 단순 동영상 보다는 아이들 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앱이 있기에 어디서나 쉽게 수업을 받을 수 있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 보호자가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보호자는 계속 스마트폰만 보면서 자녀들에게는 자제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보다는 독서나 운동 등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린다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BOOK으로 읽어요 내 손안의 인천통합전자도서관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책을 보는 방법이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전자도서관에 있습니다. 종이책은 1권밖에 없기에 누군가가 대여하면 그동안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데 전자책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책 대여에 익숙하지 않으면 처음 이용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천통합전자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보고 싶은 책을 집에서 쉽게 대출할 수 있는 이용 방법을 소개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전자도서관

인천에 거주하거나 인천 소재의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모바일 또는 PC로 어디서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소장형 전자책 - 총 5권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15일로 대출 기간이 끝나면 자동 반납(기간 내 직접 반납 가능)
구독형 전자책 - 최대 월 5권 대출할 수 있고, 대출 기간은 동일하나 대출 기간 내에 직접 반납 불가(자동 반납만 가능)

오디오북

15일의 대출 기간 동안 1일 최대 100권 다운로드할 수 있고, 스트리밍으로 이용할 경우 무제한 이용 가능

인천교육청 통합전자도서관에서는 전자책, 오디오북, 사이버 강좌, 학술 DB, 전자잡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책에도 대출 기간이 있듯이 전자책도 대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장형 전자책은 총 5권을 대출할 수 있고 15일의 대출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책이 반납됩니다. 기간이 다 지나지 않았을 경우는 직접 반납할 수 있습니다.

구독형 전자책은 월 5권으로 정해져 있고 대출 기간과 자동 반납이 되는 것은 같으나 차이점은 대출 기간 내에 반납할 수 없습니다.

전자책 외에도 오디오북과 사이버 강좌, 학술 DB, 전자잡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북은 스트리밍은 무제한, 다운로드드는 1일 최대 100권이 가능합니다. 외국어, 공무원, 자격증, IT, 인문학 동영상 강좌를 포함해 학술 DB, 전자잡지는 대출 기간 없이 무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도서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통합전자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인천시민(학생) 인증 회원 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도서관 대출회원이어야 합니다.

인천시민(학생) 인증 회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이거나 인천 소재 초·중·고에 재학 중이면 인증 후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도서관 대출회원의 경우 처음 가입할 때는 도서관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도서관(북구, 중앙, 부평, 주안, 화도진, 서구, 계양, 연수)이나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을 방문하셔서 본인 인증 후 회원가입을 하면 대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조건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 인천광역시 소재의 학교 재학 또는 직장 재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

인천시민(학생) 인증회원

통합전자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인천시민(학생) 인증을 한 회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 인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대출회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도서관 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을 방문하여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을 하고 대출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 인천 소재 직장 또는 학교 재직/재학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필요)
※ 인천광역시 거주 외국인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인천광역시 초·중·고등학생들은 학교, 도서관, 그리고 집에서도 자유롭게 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다양한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에게 책의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추천합니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은 원하는 책을 학교나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찾을 필요 없이 한 번에 검색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감상문, 일기, 편지, 동시를 쓸 수 있고 개요도 짜보고 주제를 글쓰기, 독서퀴즈 등 다양한 독후 활동도 가능합니다.

책을 읽을 때는 기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잘 잊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은 책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커뮤니티도 있어 독서 토론방, 독서 동아리에 참가하여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학생들과 교류도 하고 학생이 작성한 감상문을 선생님이 지도해줄 수 있습니다.

인천통합전자도서관과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은 책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독서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올바른 독서습관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천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전자도서관



학부모와 소통하는 고민 상담만화

1

유아의
식사 습관
바른잡기



학부모와 소통하는 고민 상담만화

2





학부모와 소통하는 고민 상담만화

3

유아의
식사 습관
바른잡기



학부모와 소통하는 고민 상담만화

4



2023학년도 1학기 학교 간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신청안내

꿈두레 공동교육과정이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간 상호 협력하여 학기별 운영하는 인천형 공동교육과정입니다.

1학기 총 278강좌(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대상)

거점형 공동교육과정 192강좌, 밴드형 공동교육과정 71강좌
온라인형 공동교육과정 15강좌

수강신청

[수강 신청 기간]

2022.12.20.(화) 9:00 ~ 2022.12.25.(일) 23:59

[추가 수강 신청 기간]

2022.12.29.(목) 9:00 ~ 2023.1. 3.(화) 17:00



학교 간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수강신청
강좌 목록 등 안내



학교 간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시스템 접속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아직 모르시나요?

한발 빠른 인천교육소식,
다양한 SNS 채널에서 만나보세요!

카카오톡

STEP 01
카카오톡 실행

STEP 02
인천시교육청 검색

STEP 03
채널 추가하기



블로그

STEP 01
네이버 블로그 실행

STEP 02
인천시교육청 검색

STEP 03
이웃 추가하기



유튜브

STEP 01
유튜브 실행

STEP 02
인천시교육청 검색

STEP 03
채널 구독하기



HAPPY NEW YEAR

2023년



학생콘텐츠메이커
박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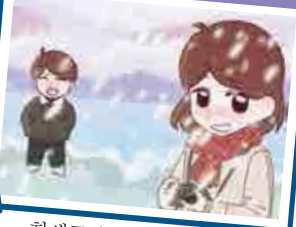


1월



학생콘텐츠메이커 박주미

2월



학생콘텐츠메이커 이채원

3월



학생콘텐츠메이커 문민재

4월



학생콘텐츠메이커 홍채원

5월



학생콘텐츠메이커 양혜원

6월



학생콘텐츠메이커 박유민

7월



학생콘텐츠메이커 김규리

8월



학생콘텐츠메이커 이채원

9월



학생콘텐츠메이커 문민재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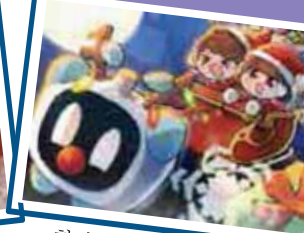
학생콘텐츠메이커 박주미

11월



학생콘텐츠메이커 양혜원

12월



학생콘텐츠메이커 홍채원